

## 전국 문화 활동 사례 공유 대회 '문화로 잇는 마을의 내일' 연다

(재)영암문화관광재단은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영암 가야금산조기념관 공연장에서 2026 전국 문화 활동 사례 공유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문화로 잇는 마을의 내일'을 주제로, 마을 활동가와 문화 기획자가 만나 지방 소멸 위기를 돌파하는 문화적 실천과 지역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마을과 문화 현장의 경계를 넘나들며 삶을 고민하는 활동가, 기획자, 코디네이터, 재단 실무자, 중간지원조직 등 경계를 넘어 연대할 현장 주체들 5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기반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는 (재)영암문화관광재단 전고필 대표이사의 "영암군의 문화 거버넌스" 발표를 시작으로 총 2개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되며, 각 세션은 ▲문화정책과마을: 시대의 거대한 폭우로부터 사람을 지켜내는 가장 작은 방파제 ▲마을에서 시작된 문화 공동체 돌봄의 선순환 ▲방파제 너머의 안부: 님

### 전국 문화 활동 사례 공유 대회 오는 20~21일 개최

아진 모서리들이 맞닿는 현장의 지그재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첫 번째 세션은 신동호 (사)인문사회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고 ▲이원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의 「문화정책의 방향, 도시에서 마을로」기조 발제 시작해 다양한 현장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고윤정 부산 고인팩트컴퍼니 대표의 「문화도시에서 마을 커뮤니티까지」 ▲ 김신에 태백 탄탄마을 협동조합 이사장의 「태백 청년마을의 실현: 문화적 확장과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전환점」 ▲ 임보현 광주 협동조합 어감 대표의 「마을 사교모치의 데뷔」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 이후에는 지정 패널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된다.

두 번째 세션은 강경환 ㈜영화제작소 대표와 권혜진 마을넷 사무국장 이 공동 좌장을 맡는다. ▲김용환 영암마을공동체센터장의 「영암 마을 만들기, 문화생태 조성의 시도」 ▲ 김준

기 강릉 협동조합 세운가락 대표의 「마을 청년의 정주, 이어지는 마을의 문화」 ▲김종현 인천 사회적협동조합 삶은연극 대표의 「독재이RPG 시장의 문화를 찾아서」 ▲이재철 진안 봉곡마을 위원장의 「거꾸로 가는 마을」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패널 토론에서는 지역 간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활동 모델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강승진 전. 춘천 문화도시센터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정민 영암외국인 주민지원센터 팀장, ▲김종현 인천 사회적 협동조합 삶은연극 대표 ▲유신애 (취생활예술클럽)연구소 프리즘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각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을과 문화 접점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시사점을 함께 도출할 계획이다.



(재)영암문화관광재단 조소영 PD는 "이번 행사는 마을 활동가와 문화 기획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며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활동의 동력을 회복하는 자리"라며 "영암에서 마을과 문화의 접점을 확인하고 전국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대 기반이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관련 문의사항은 (재)영암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사업팀 (☎061-471-9515)으로 하면 된다.

영암/김희선 기자

## 나주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창작합창의 향연' 개최

나주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창작합창의 향연' 개최

나주시는 오는 3월 19일 오후 7시 30분 문화예술소통창작소에서 나주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창작합창의 향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한국합창작곡가협회와 협업체 마련된 무대로 우리나라 작곡가들이 창작한 합창곡을 중심으로 한국 창작합창의 다양한 음악적 색채와 깊이를 시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연에서는 나주시립합창단이 한국 창작합창곡들을 수준 높은 하모니로 선보이며 한국적 정서를 담은 합창음악의 매력을 관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창작합창곡의 예술성과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무대로 지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 나주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은 "이번 공연은 한국 창작합창곡의 다양한 음악적 색채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준비한 무대"라며 "우리 작곡가들의 창작곡을 통해 한국 합창음악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가까이에서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립합창단은 2016년 창단



이후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문화예술도시 나주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사전 문자 예매를 통해 접수했으며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 예약 문자 확인 후 관람할 수 있으며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만 7세 이상부터 입장 가능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합창음악의 깊은 울림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 담양군, 제45회 대나무 디자인 공예대전 개최... 총상금 2,860만 원

4월 16~17일 접수, 5월 대나무 축제 기간 입상작 특별 전시

담양군의 고장 담양군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대나무공예 공모전인 '제45회 전국대나무디자인공예대전' 이하 공예대전을 개최한다.

담양군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예대전은 1982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온 전국 규모의 행사다.

대나무를 주제로 현대적인 감각과 디

자인이 조화를 이룬 관광 기념품, 생활 소품, 실내 장식(인테리어) 및 사무용품 등 창의적이고 쓰임새 좋은 공예품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모는 일반부인 '융·복합 분야'와 대학생부인 '실용 디자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나무 공예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반부는 대나무와 다른 소재를 결합

한 현대적 창작 실물 작품을, 대학생부는 담양이나 대나무 공예를 상징하는 기념품 디자인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한국대나무박물관(061-380-2905)에서 받으며, 시상은 총 28명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총 2,86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입상작은 2026년 5월 담양 대나무 축제 기간에 맞춰 한국대나무박물관에서 약 90일간 전시돼 관람객과 만난다.

담양/이종욱 기자

**제45회 전국 대나무 디자인 공예대전**

접수기간: 2026. 4. 16. ~ 4. 17. (토, 일)

접수처: 한국대나무박물관 (061-380-2905)

상금: 총 2,860만 원

대상: 일반부, 대학생부

전시: 2026년 5월 담양 대나무 축제 기간

## 광양중마도서관, 상반기 시민독서학교 수강생 모집

광양중마도서관이 시민들의 인문 독서 역량을 높이고 독서를 통해 사유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시민독서학교'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시민독서학교는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두 개의 과정으로 운영되며, 과정별 15명씩 총 30명을 모집한다. 연령별 독서 수준과 관심사를 반영해 책 읽기와 토론, 독후 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시민 맞춤형 인문 독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초등학교 3~5학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각이 커지는 역사놀이' 과정은 역사 관련 도서를 읽고 토론과 글쓰기 활동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요 읽기 도서는 「별을 사랑한 시인 윤동주」, 「오월의 달리기」 등이며, 프로그램은 4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30분에 총 8회 운영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나를 돌아보는 깊이 읽기' 과정은 책을 함께 읽고 삶과 감정을 성찰하는 독서 프로그램이다. 「어린왕자」, 「인생 수업」, 「이방인」 등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4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총 8회 운영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독서학교가 책을 매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삶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3월 17일(화) 오전 10시부터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 (<http://lib.gwangyang.go.kr>) 또는 전화 (☎061-797-3880)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 '책 읽는 마을' 장성군, 독서 문화 무르익는다

지역 내 독서동아리에 운영활동비, 공간 지원... 19일까지 신청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교사, 사서, 기타 독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동아리 대표에게 최대 80만 원의 운영

활동비가 지원된다. 도서관 시설도 독서모임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장성군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

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정기적으로 도서관 시설을 이용할 예정이면서 행사, 재능기부, 봉사 활동 등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활동 2년 미만의 신생 동아리는 선정 시 가산점을 받는다. 결과는 오는 24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장성/황해연 기자

**보다나인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어** 금이 있습니다

**농어**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담·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농지연금